

수도권·지역논리 싸움이 '지방공항 비극' 키웠다



전일칼럼

김성수
논설위원

17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 지방공항이 최대 위기다. 무안국제공항에서 벌어진 이번 사고를 통해 공항의 구조적 문제와 LCC(저비용 항공)의 관리 부실의 위험성이 대두됐다.

문제는 참사를 빌미로 무안공항이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영터리 경제성 조사와 지역민원·정치논리에 의해 철새도래지에 세워진 '고추 말리는 공항'으로 비하됐다. 무안공항뿐 아니라 '지방' 타이틀을 단 공항 모두가 도매금 비판으로 확대됐다. 만성적자라는 이유에 조류충돌, 안전장비·인력부족 등의 '안전 뒷전'까지 덧씌워져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다. 어쩌다가 '지방공항'이 미움의 대상이 됐는지 돌아보기가 필요해 보인다.

사실 지방공항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지역 수도권 중심의 발상이다. 인구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전문화적인 비용을 들

여 지역에 공항을 짓는 건 경제논리로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적자로 문을 닫을 게 뻔하다는 논리다. 그렇다면 지역이라고 논리가 없겠는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지역에 사는데도 교통불편 감수는 지역 몫이다. 또한 수도권 일극주의에 맞서기 위한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소멸을 막는 절박함에서 공항 건설은 지역숙원 사업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첨예한 논쟁의 대상인 지방공항을 향한 수도권 논리와 지역 논리 중 누가 더 타당한 걸까?

일, 98개 공항 난립... 답습 우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쏟아진 언론보도를 종합해 보면 수도권 논리의 핵심은 지방공항 난립과 경제성을 꼽을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하고 공항공사에서 운영 중인 지방공항은 총 14개다. 이중 김포, 제주, 김해공항을 제외한 11개 공항이 10년 이상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공항은 10곳에 이른다. 가덕도신공항과 제주 제2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새만금국제공항, 울릉공항, 백령공항, 흑산공항, 서산공항 등 8곳을 비롯해 지자체 차원에서 경기국제공항과 포천공항 건

설이 논의되고 있다.

지방공항 문제를 얘기할 때 일본 사례는 정곡을 찌른다. 일본에는 무려 98개의 지방공항이 있다. 15년 전 인 2010년 기준 흑자를 기록한 공항은 8곳에 불과해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결국 일본 공항의 적자행진은 역대 자민당 정권의 선심정책이다 각 지자체가 앞 다퉈 공항개설 나서 공항 난립 상황이 온 것이다. 결국 우리도 일본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방관점에서 지방공항 건설의 명분은 차고도 넘친다. 양질의 일자리, 풍부한 인력과 자본이 넘쳐나는 수도권의 팽창은 지방의 소멸을 부추겼다. 인프라 부족과 수도권과의 접근성 문제로 기업이 투자를 꺼리는 게 현실이 됐다. 그래서 공항, 고속도로, 철도 등 SOC 유치에 지자체가 목을 매는 이유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땀을 짓는 행위는 합리적 투자고, 지방에 쓰는 건 세금 낭비라는 시각 속에 지방 투자에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정부의 기조에 반발할 수밖에 없다.

무안공항이 생겨난 배경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야 할 것 같다. 31년 전인 1993년 7월 해남 운거산에서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승객과 승무원

116명 가운데 68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고원인은 악천후와 당시 목포공항의 열악한 시설이 꼽혔다. 목포공항의 활주로 길이가 1500m에 불과했고, 자동 착륙 유도장치 등도 없었다. 결국 안전을 위한 조치가 공항 신설이었다. 무안공항은 7년의 공사 끝에 2007년 11월 첫 취항했다. 가덕도 신공항도 마찬가지다. 13조원 규모로 추진 중인 가덕도 신공항 역시 2002년 4월 김해 돛대산에서 발생한 '중국 국제항공 여객기 추락사고'로 129명의 희생자가 발생하면서 추진된 것이다. 무안공항은 건설 당시 광주 민간·군 공항과 통합까지 추진 중이다. 수도권 논리를 타파할 경제성 확보를 위한 전략이다.

'예산 안돼' vs '지역 살려야' 공방전

이처럼 지방공항을 놓고 수도권과 지방의 불편한 시선은 흡사 보수와 진보로 갈라진 정치상황 같다. 타협과 대화 없이 서로 혈투만 하는 정정은 결국 국가를 혼란에 빠트렸다. 지방공항 역시 수도권 논리와 지역 논리의 틈바구니에서 물고 뜯기는 신세다. 수십 년째 이어진 논리싸움이 지방공항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몬 건 아닐까. 지방공항 건립과 추진 과정을

보면 정치권의 공약 난발과 뒷감당을 해야 하는 정부의 재정부담, 관련 부처의 공항 건립 예산삭감 기조와 소극적 대응으로 이어졌다. 지역을 살리겠다는 희망고문으로 지방공항을 세우려는 지자체는 적자공항을 활성화하겠다며 발버둥을 치고 있고, 신규 공항 건립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끌어들이는 LCC의 실적을 내세운 무리한 운항은 결국 참사를 불렀다. 만성적자와 부실 운영 속에 버드스트라이크(조류충돌)을 예방할 관제사·조류퇴치 인력 부족, 최악의 피해를 안긴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 비행기 정비인력 부족 등 참사의 원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지방공항이 돈의 논리 속에 '값싼 안전'만 취급된 셈이다.

어디서부터 되돌려야 할까. 기존 공항은 물론이고 신공항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총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이런 점검 과정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논리만으로 접근은 금물이다. 좀 더 냉철함과 명확성을 근거로 지방공항 운영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이번 참사의 안전 불감증 지적 역시 뼈아프게 수용해야 한다. 최악의 여객기 참사로 이어진 지방공항의 비극은 이제 멈춰야 한다.

그대여, 의병이여

에세이



유순남
수필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 당시 거리로 몰려든 사람들의 환호와 탄성이 쏟아져 나왔다.

한 여고생은 이날 집회에 참석한 소감에 대해 묻자 "민주주의가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3일 22시 30분 윤 대통령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비상계엄령을 발표했다. 50분쯤 서울에 사는 아들이

국회 앞 사진과 함께 소식을 보내주었다.

실시간 뉴스를 보니 벌써 국회 앞에는 시민들이 몰려있었고, 어떤 사람은 계엄군의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고 있었다. 그 후 십여일 동안 서울에서는 매일 모여 탄핵 찬성을 독려하는 집회를 열었다.

부산에서도 대구에서도 춘천에서도 광주에서도 탄핵을 원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열렸다. 계엄이 통치라는 망상에 빠진 대통령 때문에 국민의 고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이 경찰 소환에도 불응하고 있다. 헌정사상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이마저도 버티고 있는 모습이다. 비뚤어진 열성

지지가 뒤에 숨어 쫓아나온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이때문에 거리의 시위는 더 뜨겁고 열정적이다. 특히 이번 시위는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위 때와는 다른 모습이였다.

그때 나는 비 오는 날에도 비옷을 입고 시위 현장에 있었다. 이번에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서 걱정을 많이 했었다. 그런데 그것은 기우였다.

이번 '탄핵 촉구 범국민대회'의 주를 이루었던 연령층은 십 대부터 삼십 대 그리고 여성이었다고 한다. 계엄을 하거나 왔다는 남자도 있었다.

그들은 체감온도 영하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집을 나와 추운 현장을 마다하지 않았다.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들을 응원하던 응원봉을 흔들며 누구에게나 익숙한 가요에 개사를 해서 흥겹게 노래를 불렀다. 개인 공연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루 종일 누워있기 모임' 등 재미있는 풍자 현수막도 많았다. 왜 나왔냐는 질문에 "내 삶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응원봉을 들었다."라는 젊은이도 있었다. 특히 발언대에 올라 탄핵 찬성에 대한 자기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청소년들을 보며 감동했다.

먼저 십대에 주목한다. 흔히 기성세대들은 요즈음의 청소년들은 예의 없고, 사회에 관심 없고, 학교폭력이 심한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그런 학생들이 없지 않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대다수다. 그들은 기성세대보다 더 민주적이고 상대를 배려하는 분위기다.

다음으로는 젊은 여성들에 대해 생각

해 보았다. 페미니스트이면서 신유물론자인 이탈리아의 '로지 브라이도티'는 자신의 저서 '변신: 되기의 유물론을 향해'에서 포스트휴먼 시대의 새로운 주체인 '여성-되기'에 대해 말했다.

'여성-되기'로서의 주체는 '여성'이라는 단순한 범주에 묶이지 않는 다층적으로 체현된 주체라는 것이다.

즉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주체라는 개념에 갇히지 않고 현실에서 자기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낸 주체를 의미한다고 한다.

이제는 우리나라 다수의 여성이 '여성'이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 묶을 수 없는 고유한 개체로서 독립된 주체로 '체현'된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라고 본다.

집회 현장에 모인 그대들이여! 그대들이 젊은 나이가 많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대들은 이 시대의 진정한 의병들이다.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복고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